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13, 예레미야 8-10, 우상 숭배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13회 예레미야서 8-10장입니다.

오늘 우리 세션은 예레미야서 8-10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의 멸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가져오실 멸망, 우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분류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무작위로 메시지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고 진행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혼돈처럼 보이는 것도 루이스 스톨먼(Lewis Stuhlman)이 상기시켜 주듯이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첫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충실한 아내에게 그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는 2장에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3장, 4장 초반부에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반복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꺼이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 다음 다음 섹션, 즉 4장의 나머지 부분부터 6장의 끝까지 일련의 시적 신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서는 군대와 다가오는 침략,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은 그 부분에서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6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입니다.

그는 이 적군을 보낼 것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산문 설교가 이어지며, 내 생각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이미지인 시를 여러 면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 설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후회하실 것이라는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날 무렵, 메시지의 어조는 심판의 가능성에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해요. 그들은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꾀와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고한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갔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특징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백성을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듯이,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메시지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문제는 메시지의 명확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메시지의 수사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모임에서 선지자가 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성전 설교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신시키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회개가 가능한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7장 이후에 우리는 8장부터 10장까지 이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심장 문제를 갖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임할 심판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시적 신탁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선지자는 이 부분의 시작 부분인 8장 4절에서 6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4장에서 7장까지 진행된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면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누군가 집에서 멀리 여행을 떠난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양방향 여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핵심 신학적 단어인 슈브(shub)가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절, 그렇다면 왜 이 백성은 계속 타락하여 돌아섰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닥치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쫓겨나거나 그분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임수를 굳게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주의를 기울여 들었지만, 그들은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악한 말을 뉘우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9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4장에서 부르심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피부의 포피를 잘라내고,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완고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모든 자와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들과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를 벌할 것이라 머리털을 자르는 자들은 이 모든 족속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그들 주변에 사는 할례받지 않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 속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17장 1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돌에 글을 새기는 데 사용된 철 도구 중 하나를 상상하는데, 이는 종종 비문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철필로 돌에 새기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품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사악한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2장부터 10장까지는 책 전체에 걸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렇게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격입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장 수술을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의 후반부 예레미야서에서 나중에 새 언약을 공부할 때, 우리는 24장 7절,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일련의 구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31장부터 33장까지 새 언약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어서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약속, 즉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3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토라를 기록하여 그들이 그분께로 돌이키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적인 욕구, 능력, 능력, 신적 권능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살기 위해. 이때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은 그들의 뿌리깊은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우실 것이고, 새 언약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32장은 그들이 가능하게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계명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전략과 음모의 일부인 예레미야서 초반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품성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들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 사역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그 죄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안팎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심장 문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마음이 정확히 무엇이기에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그들의 마음을

그토록 패역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우상 숭배에 전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인용문을 몇 번 사용했지만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9장 14절에서 완악한 마음과 우상 숭배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봅니다.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완고하게 자기 마음을 따르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관참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열방의 신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섬기려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선교사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주변의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았을 때,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요 땅 사이에 있는 이 장소에 두시어 큰 길에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증인이 되소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나라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 있어서 이런 크고 영화로운 율법을 주실까?'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나요? 약속의 땅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이교도들 가운데 중심가에 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를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는 주로 그것과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길을 배웁니다.

그들은 열방이 따르는 신들을 배우고 생수의 근원을 떠나 터진 웅덩이에 목숨을 바치는도다. 그들은 한가하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의 경고는, 4장부터 6장까지, 7장 성전 설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적군을 불러오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침략할 이 적군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언약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4~6장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의지와 의지가 없으면 적군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7장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해지면 이곳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겠다. 네가 만일 네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실로에게 행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도 행하리라. 그래서 8장 부터 10장까지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침략, 포위, 그리고 그 공포와 유다가 겪게 될 일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선지자에 대한 또 다른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방식을 바꾸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적군이 쳐들어온 후와 군대가 그 땅을 침공한 후의 백성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8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공포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왜 가만히 앉아 있나요? 함께 모이자.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엔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정하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시간을 위해 그러나 보라,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공포뿐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6절에서 이 군대가 그들의 땅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에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말의 코고는 소리가 그 땅 북쪽 단에서 들리느니라. 그 종마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느니라.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그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과 그 성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삼키니라.

보라 내가 술식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노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게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독사를 온 땅에 풀어 놓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모두 유다가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에 전념하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할 수 없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은. 거기에는, 그 때문에, 이 반역 때문에 유다에게 임할 형벌을 포위하는 적의 침략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묘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죽음이 우리 창문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궁궐에 들어와서 거리에서 아이들을, 광장에서 젊은이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하라. 사람들의 시체가 거름처럼 들판에 떨어지며, 추수꾼 뒤에 떨어지는 곡식단처럼,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그들의 땅을 침공하는 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저승사자로 묘사하고 그것을 의인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죽음을 저승사자로 의인화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못은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못이 땅을 침략하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창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궁궐에 올라가서 왕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똥처럼 온 땅에 흩어질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이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에 대한 묘사라면 확실히, 분명히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심장 문제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너무 헌신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된 길에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이런 종류의 경고조차도 그들의 과거 생활을 반영한 죄악된 패턴에서 그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서 열왕기하 6장에 포위 공격이 실제로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고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유다의 상황은 얼마나 끔찍해질 것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그들의 적국인 아람 사람들이 포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벤하닷은 그의 군대를 데려왔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이것이 여러분의 식량 공급과 물 공급이 궁극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몇 달이 지나면 결국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부족해져서 항복하거나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의 기근은 너무 심해서 당나귀 머리 한 마리가 은 80세겔에 팔린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7~8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리터는 여섯 달 품삯과 은 5세겔에 해당하는 귀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구절에는 두 여자가 자기 아이들을 죽여 먹기로 합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여인은 그렇게 했고, 다른 여인은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좋아요. 그만큼 포위 공격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기근과 기근, 물 부족, 식인 풍습, 끔찍한 고통, 그리고 적들이 도시를 점령함에 따라 죽음 자체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레미야 39장, 52장에서 예루살렘 성 함락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에 겪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그들은 그런 종류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요엘서에 나오는 소선지서 중 한 사람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반응, 즉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엘의 메시지에 대한 백성의 반응과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을 대조하기 위해 요엘 2장을 잠시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엘서의 연대에 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정은 유배 이후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다는 포로 생활과 그 모든 심판을 겪은 후에도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돌아왔지만 지리적 변화가 그들의 마음을 실제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올 때 더 많은 심판과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그 후에 기록하기를 메뚜기 떼가 그 땅에 다니며 그들의 농작물을 황폐케 하였느니라.

조엘은 그게 단지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침입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적의 침입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적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심판, 포위 공격으로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요엘이 이 메시지를 전파할 때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과

옷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요엘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당신의 삶에서 유턴(U-turn)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단지 금식 의식을 치르고, 옷을 찢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에 할례를 받고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금식, 울음, 애통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를 반영하게 하십시오.

조엘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시로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에 반응할 때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 유효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당신은 이 심판과 침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4절, 누가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남겨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아?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사용하여 음식과 음료를 빼앗으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당신에게 음식과 음료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금식을 성별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성별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의 방. 이봐, 모두 함께 모여서 모두를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누군가를 신혼여행에 데려가자.

모두 함께 모이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어쩌면 하나님은 뜻을 굽혀 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7절 끝에서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총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땅을 질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만족할 것이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북방 사람을 너희에게서 멀리 쫓아내어 그를 메마르고 황무한 땅으로 몰아넣고, 그 선봉은 동해로, 후위는 서해로 몰아내리라.

그에게서 악취와 악취가 오르리니 그가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야,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심판을 멈추시고, 적군을 물리치시고 유다 백성에게 심판 대신 축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는 나중에 계속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메뚜기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미 임한 심판의 효력도 거두어 가십니다. 이러한 심판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뜻을 굽히사 심판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백성이 어떻게든 그에게 반응한다면, 그리고 예레미야 5장 8절에서 이 말을 듣고 그것이 요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5장 4장 8절 에 “이것이 굶은 베를 입고 애곡하며 통곡하니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엘 시대에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한 선지자가 어떻게 경고했는지 보여주는 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단지 의식만 행할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심판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미 메뚜기가 올 때, 군대가 벼를 때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주님은

이와 같은 종류의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는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에게 심장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9장 14절에서 우상 숭배가 유다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는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10장에는 우상 숭배의 무익함에 초점을 맞추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선지자는 단순히 우상 숭배가 무익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에서 그는 백성의 풍속과 이방 풍습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수평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우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바람일 뿐이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증기일 뿐입니다. 숲에서 나무를 베어 장인의 손으로 도끼로 작업합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망치와 못으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오이밭의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들은 말도 할 수 없고, 안고 다녀야 하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느니라. 아이돌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다소 신랄한 풍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자체가 그들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교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것을 대표하는 우상 사이에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의 존재가 형상 자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매우 실제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거나 우상의 입을 씻는 일이라고 하는 성별 의식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형상이 하나님께 성별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상 자체와 연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이 생명이 없는 대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우상 숭배자가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것은 이 우상들이 상징하는 신들을 신뢰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과 47장에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언급하면서 같은 종류의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무에서 통나무를 잘라 절반을 불에 태워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나머지 절반을 형상화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이 상징하는 신을 숭배하고 싶어하겠습니까? 이제 구약성서에는 영적인 힘이 있고 우상과 관련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할 것이라고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디어는 단순히 그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우상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에 비하면 이 우상과 그것으로 대표되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부분인 6장부터 10장, 혹은 미안하게도 10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6-10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네게 마땅한 일이니라 열방의 모든 지혜 있는 자와 그들의 모든 왕국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우상의 교훈은 나무에 불과하다. 10절,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의 진노하심에 지진과 열방이 그의 진노를 견디지 못하느니라. 주님만이 이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 우상들이 신을 대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와 같은 신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처럼 역사를 통제할 주권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사실 아이돌에 어울리는 표현은 멍청하고 어리석다는 것이다.

괘찮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선지자가 이 설교에서 우상에 관해 말하려는 마지막 요점은 우상은 무익하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10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니라.

주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주님이시며 유일한 분이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그 증거는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창조 유일신론을 믿었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영적 존재나 능력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천하에서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으니

좋아요.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축복과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은 주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우상 숭배 신학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 11절부터 15절까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연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상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말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며, 우상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우상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력하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확실히, 그는 거기에 냉소적인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멍청하고 어리석다. 14절과 15절에서 그가 우상 숭배자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고 지식이 없습니다. 금 세공인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받는 것은 그 형상이 거짓되고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무가치하며 미혹의 작품입니다.

좋아요, 여기 예레미야의 신학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멍청하고 어리석다. 그러므로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GK Beale은 우상 숭배와 그 신학에 관한 그의 책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 방식은 이 헛되고 어리석은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게 몸을 굽혀 경배할 때,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적어도 네 번이나 나오는 그들에 대한 묘사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eale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모세가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완고한 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완고한 소처럼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시편 115편은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과 닮아갑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은 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듣지 못하는 귀와 냄새를 맡지 못하는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이 있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느끼기는 하지만 걷지는 않습니다. 발이 있지만 걷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허수아비와 수박밭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미지가 들리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8절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들처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게 당신의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요. 그것은 다른 신들에 대한 당신의 헌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여러분을 어리석고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알 수 없고, 옳고 그름을 행할 수 없는 신들을 섬기면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주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이 헛된 신들에 대한 숭배로 인해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장들에서 이스라엘의 지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다시 지적할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유다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지식이 부족합니다.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황새도 자기 때를 알고, 비둘기와 학을 탄 제비가 올 때를 지킨다.

그들은 그들의 본성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으신 것들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물에 심어주셨으나 내 백성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동물보다 더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늘의 새들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8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지혜롭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되 서기관의 거짓말하는 붓이 거짓된 것을 만들었다고 하느냐.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이 실제로 본문을 바꾸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말씀을 무디게 하고 오직 축복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의 지혜자들은 어리석었습니다.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일을 깨달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입이 누구에게 이를 알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그 땅이 황폐하고 광야처럼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왜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대답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할 명백한 것을 보십시오.

9장 23절과 24절,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를 깨닫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아시다시피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은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악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지 이해할 능력을 잃었고, 우리가 재앙을 자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감각도 잃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혀를 활처럼 구부립니다. 거짓과 진실이 아닌 것이 이 땅에서 그릇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고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지식의 근원에서 돌아섰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9장 6절에 학대에 학대를, 궤환에 궤환을 더하여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 자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지식의 참된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 몇 분만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유다의 우상숭배는 단지 경쟁적인 신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유일신론자인가, 다신론자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상 숭배에는 선지자가 말하는 삶의 전략이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을 의미 있고 의미있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고안된 전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약 전체를 통해 우상 숭배를 연구하면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불경한 삼위일체, 돈, 성, 권력과 종종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그들에게 부와 재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폭풍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주와 곡식과 풍성한 소출을 주시매 그들이 돌이켜 바알에게 도로 드리는 것은 바알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교 의식을 행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성행위 및 성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다산의 신들은 그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것입니다. 유다에서 분열된 군주제 시대에

고고학자들은 유다 백성의 집과 집 아래에서 이러한 다산의 여신상 수백 개를 발견했습니다.

여자들은 이 신들이 그들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숭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산신 숭배는 성적 부도덕, 매춘, 다산의례를 숭배 실천 자체에 끌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도덕적 명령을 따를 필요 없이 그들의 삶에 섹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이런 종류의 종교를 장려한다면 그것은 현대 문화의 철학이기도 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권력 획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신들의 능력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우리는 모압 왕이 전쟁 중에 신의 힘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성벽에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와 므낫세는 그 신들이 제공하는 힘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앓수르와 동맹을 맺고 앓수르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님만이 가지지 못하는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두로 의 왕이 강력한 정치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인 그녀의 아버지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가 왕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서 자기 포도원을 당신에게 팔기를 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상은 권력을 약속한다. 예레미야와 선지자들과 주님께서 친히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당신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신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부정한 삼위일체가 될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설계하신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돈, 섹스, 권력이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의 근원이 되실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것들의 근원으로 인식할 때, 이러한 것들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부의 원천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또 넉넉하게 베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섹스와 사랑과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고, 그것은 이타심의 아름다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근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섹스는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 우리 자신을 소비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이나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사회를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고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단지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잘못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잘못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돈, 섹스, 권력 또는 기타 다른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변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신들은 그들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을 결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바알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겪게 될 가난과 가난을 보십시오.

그들은 국가로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섹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실제로 그것을 그들의 숭배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권력과 보호, 안전을 가져다 줄 우상을 찾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것을 매우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별들로 대표되는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별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할 수 없는 보호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략이 효과가 있었나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때에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가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추구하고 구하고 경배하는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 앞에 흩어지리니 다시 모아지거나 장사되지 못하리라. 그들은 땅 표면의 똥처럼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 중 하나는 적절한 장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무덤에서 꺼내져 그들이 숭배하던 별과 해와 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인생을 살기 위한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며, 절망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실용적이고 관련되게 설명하면서 팀 켈러(Tim Keller)는 자신의 저서 '위조된 신들'에서 돈, 섹스, 권력 또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잘못된 전략을 상기시킵니다. 얼마 전 켈러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안전과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세요.

그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켈러는 승인 이상 숭배에 대해 말합니다. 인생은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우상, 노동우상, 종교우상, 심지어 종교 그 자체, 비종교적 우상, 위안우상, 가족우상, 관계우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그런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처럼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고 보안과 중요성을 위해 잘못된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켈러는 우리가 우리 마음과 삶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의지할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과 정체성을 배우자와 파트너에게 집중한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질투하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정체성을 가족과 자녀에게 집중한다면, 자녀가 당신을 원망하고 자아를 갖지 못할 때까지 자녀를 통해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할 때 그들을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과 정체성을 당신의 일과 경력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의욕이 넘치는 일중독자이자 지루하고 천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가족과 친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좋지 않으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이 정체성과 돈, 소유물이라면 당신은 돈에 대한 걱정이나 질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비윤리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당신의 삶을 망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정체성을 즐거움, 만족, 편안함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무언가에 중독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어려움을 피하는 탈출 전략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정체성을 관계와 승인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비판으로 인해 끊임없이 과도한 상처를 받고 친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따라서 쓸모없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정체성을 고귀한 대의에 집중한다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적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없이는 목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과 정체성의 중심을 종교와 도덕에 둔다면, 당신의 도덕적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면 당신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잔인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도덕적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죄책감은 완전히 파괴적일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가 숭배하는 것과 닮아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수를 결코 제공할 수 없으며, 결코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13회 예레미야서 8-10장입니다.